

# 겨울철 코로나 추가 '집중'

### 익산시, 감염취약시설·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다음달 11일부터 시작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하여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코로나19 접종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허용되며, 고위험군 중심으로 우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다음달 11일부터 접종을 진행한다.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잔여 백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명단이나 SNS 등을 통해 예약한 뒤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022-2023년 동절기 접종 1순위는

요양시설·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2순위로는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군 및 임영장병, 교정시설 등) 거주자, 3순위는 18~49세 성인이다.

접종은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 가능하며, 백신종류는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mRNA 2가 백신인 모더나 또는 화이자부터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품목허가를 마치고 9월 15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을 먼저 활용하고, 화이자 BA.1 기반 2가백신도 신속하게 도입될

예정이다.

접종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http://ncvr.kdca.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859-7618~7620)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하여 접종기관 방문이 어려운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 방문접종팀이 10월초부터 방문해 접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60대 이상 및 면역저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동절기 추가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6일 오전 시청에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이진형, 이인영)과 상호지원 및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군산 특산품 알릴 창구' 열려

### 상권활성화재단·여성소비자연합, 상호지원·상생발전 협약 체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6일 오전 시청에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이진형, 이인영)과 상호지원 및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 구도심의 다양한 지역문화유산과 함께 시장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체험 등, 전국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원들에게 알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상생발전을 위해 실시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 상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교육, 지역별 이슈 해결 개선, 시장감시 등 소비자보호 활동을 실천하며 전국 5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전국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군산 지역 상품, 전통시장의 상품 등을 널리 이용하고 홍보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강임준 재단 이사장은 "상권활성화 재단은 잠재된 구도심 상권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의 협약을 통해 군산의 구도심 상권과 연계한 시장 체험 투어 프로그램 등 구도심 상권 홍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군산야구역사도 척척

### 이성당에서 '군산야구 100년사' 38명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달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군산의 야구역사를 전달한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26일 이성당 관계자가 도서 '군산야구 100년사'의 저자인 조종안 기자와 함께 시간여행마을 관광안내소를 방문해 '군산야구 100년사' 문화관광해설사 38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산야구 100년사'는 지난 2014년 최초 출판 이후 5~6년 동안 각종 자료수집을 통해 증보된 내용으로 2020년 초부터 올해 봄까지 약 2년에 걸쳐 지역 언론사를 통해 먼저 독자와 만났고 역전의 명수 탄생 50주년 의미를 더한 지난 7월 19일 개정 출판됐다.

그 시절 '군산 야구'와 국민 다수에 전율을 이끌어 낸 '역전의 명수'의 향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군산의 야구역사'를 전달한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쓰거운 감동을 전한 '군산야구 100년사'는 군산 야구의 역사를 총 망라한 저서다.

지난 22일 실시된 이성당의 도서 기증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다양한 해설에 귀중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군산야구 100년사'의 기증은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군산 야구의 한 측면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했다.

문화관광해설사 김옥분 회장은 "평상시에도 전국 유명 상점으로 관광에 이바지하는 이성당이 군산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서 기증을 해주신에 감사드리며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해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서동축제, 친절 축제행정 펼쳐

익산서동축제에 백제신하들이 나타나 관광객들에게 친절 축제행정을 펼친다.

시는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1월 개최하는 '익산서동축제'에 익산시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직원들 50여명이 백제의상을 입고 축제장 현장을 누비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특히 축제 공간이 넓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만큼 관광객들의 안내 문의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백제의상'으로 가시성을 높여 '결어디니

는 안내데스크' 역할로 축제 민원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익산서동축제는 서동, 백제 왕이 되었다를 주제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금마서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에서는 무왕즉위식을 비롯한 다양한 백제유등이 축제장의 밤을 밝히며, 금마저수지의 빼어난 실경을 활용한 수상공연과, 무왕 즉위식 퍼포먼스, 백제무사체험, 서동요전설, 서동선화 직업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불거리로는 '몽원 : 서동의 꽃' 댄스 컬 공연과 마당극공연, 퓨전 실내악 공연, 백제문화재단의 미마지 오악사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금마 주민들이 직접 만든 한지등 전시도 축제기간에 감상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도시건설 '맞손'

익산시가 녹색정원도시 건설을 위해 정원문화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시는 26일 아가페 정원에서 정원을 익산시장과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공 및 민간시설에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서비스를 지원 등 익산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녹색정원도시 건설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수목원인 '백두대간수목원, 세종수목원, 한국 자생식물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목원·정원분야 전문기관이다.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정원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아가페 정원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고 향유 식물



정원의 교환, 기술공유, 전문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및 관리서비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원을 익산시장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라는 전문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름답고 살기좋은 익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민간기록 시민대상 공개 강연

익산시는 민간기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시민에게 주제적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기록 공개 강연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26일 오후시에 '기록하는 아이들과 기록되는 도시'와 모든 시민은 기록가다'라는 주제로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공개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에서 기록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기록활동가를 모셔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들을 공유하여 기록의 중요성과 의미를 나누는 강연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강연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주제를 기록하고 소통하는 기록문화 화를 즐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2022 가족속앓 사진공모전 개최

군산시는 가족과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는 <2022년 군산시 가족속앓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1가족당 2점 이내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rhka3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추억'을 주제로 임신·출산의 기쁨을 담은 사진, 다둥이 가족의 형제자매의 우애를 느낄 수 있는 사진 등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을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시민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점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각 30만원, 장려상 10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군산시장 상장을 함께 수여한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